

한국 초기 기독교학교의 쇠퇴에 관한 연구 - 장로교계통의 소학교를 중심으로 -

박 상 진*

논문초록

한국의 최초 기독교학교들은 미국의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되지만 1890년대 이후 한국의 토착 교회에 의해 기독교학교들이 설립되기 시작한다. 1909년에는 장로교계통의 기독교학교들만 694개교에 이를 정도로 기독교학교 설립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그러나 1909년을 기점으로 그 후에는 지속적으로 기독교학교의 수가 감소하게 된다. 본 연구는 초기 기독교학교, 특히 장로교계통의 기독교학교의 감소 현상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그 과정 속에서 교회가 한 역할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이러한 역사가 오늘날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들에게 주는 교훈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본 연구는 장로교가 총회를 구성하기 전인 독노회 시기의 회의록과 장로교 총회 회의록 및 기타 역사자료들을 분석하여 기독교학교 수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장로교계통의 기독교 소학교의 경우, 1887년의 경신학교 1개교로부터 시작하여 1909년에는 694개교로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그 이후에 기독교학교 수가 감소하게 되는데, 1915년에는 477개교로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감소 현상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분석될 수 있다. 첫째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폐교이다. 재정적인 어려움은 모집의 어려움과도 직결되며, 안정적 재원을 지원받지 못한 것도 중요 요인이다. 둘째는 일제의 기독교학교 탄압정책, 특히 1908년에 공포된 사립학교령 발표로 인한 기독교학교의 위축을 들 수 있다. 셋째는 관·공립학교의 설립 증가로 인한 어려움이다. 일제가 시설이 좋으면서도 등록금 부담을 대폭 줄인 관·공립학교를 설립함으로써 기독교학교의 경쟁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한국 장로교회가 이런 과정 속에서 노회마다 학무국을 설치하고 교단적인 차원에서 지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일제의 기독교학교 탄압에 항거하였지만 기독교학교의 쇠퇴를 막지는 못하였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들은 이러한 초기 기독교학교의 쇠퇴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주제어: 기독교학교, 장로교 소학교, 주간학교, 기독교학교 쇠퇴, 기독교학교 탄압

* 장신대, 기독교교육학

2012년 01월 29일 접수, 03월 08일 최종수정, 03월 21일 게재확정

I. 들어가는 말

한국에서의 개신교 선교 역사는 기독교학교의 설립의 역사와 동일시될 수 있다. 1884년부터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H. G. Underwood)와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H. G. Appenzeller), 그리고 스크랜튼(M. F. Scranton)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 세운 경신, 배재, 이화학당들이 기독교학교 운동의 효시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한국 개신교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1890년대 이후부터 선교사들만이 아니라 한국의 토착교회와 그 교인들에 의해서 수많은 기독교학교들이 설립되었다.¹⁾ 이들 학교들은 대부분 소학교였는데, 1909년에는 장로교 계통의 소학교만 694개교가 있었으니 백낙준(1993: 423)이 이를 ‘교육문예부흥’(the educational renaissance)이라고 일컬었던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많은 수의 기독교학교들이 일제 시대 초기에 그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소위 ‘기독교학교 운동’이라고 불리울 수 있을 정도로 교회가 기독교학교를 설립했던 그 왕성한 노력도 약화되기 시작한다. 장로교계통 학교의 경우 1909년을 기점으로 그 이후 점차 학교 수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당시 기독교학교의 현황은 어떠한었으며 왜 기독교학교 수가 감소하게 되었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응답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던 장로교 계통의 소학교를 중심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초기 기독교학교가 부흥할 수 있었던 원인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임희국, 2007; 박상진, 2011), 초기 기독교학교의 쇠퇴의 원인을 분석하고 한국교회가 그 과정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²⁾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나라에 많은 기독교학교들과 기독교대안학교들이 설립되고 있지만 이들이 쇠퇴하지 않기 위해서는 앞선 역사 속에서 교훈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갖고 이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의 초기 기독교학교의 쇠퇴 현상은 어떠한었는가?

1) 한국의 초기 기독교학교는 크게 선교사에 의해서 설립된 학교로서 선교회에 속해 있는 기독교학교와 한국교회에 의해서 설립된 기독교학교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회에 의해서 설립된 학교, 그 중에서도 장로교 소학교(초등교육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려고 한다.

2)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쇠퇴’라는 용어는 ‘힘이나 세력 따위가 약해져 전 보다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질적인 영향력의 약화라는 의미보다는 양적인 감소에 강조점을 두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둘째, 한국의 초기 기독교학교들이 쇠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 셋째, 그 과정에서 한국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 넷째, 이러한 역사적 현상이 오늘날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II. 한국 초기 기독교학교의 설립과 쇠퇴

초기 한국교회가 설립한 학교가 어느 정도였으며 해마다 그 추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당시 기독교학교 수의 변화를 파악하는 통계적인 분석은 초기 기독교학교의 상황과 학교설립 운동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작업이 아닐 수 없다. 다행히도 초창기 기독교학교에 관한 수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1905년부터 1915년까지의 장로교회 독노회 및 총회회의록에 기록된 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이전의 통계는 미국 장로교 선교회에 보고된 1887년부터 1904년까지의 장로교회 부설 초등학교 통계를 분석하려고 한다. 먼저 초기 한국 장로교회가 설립한 기독교학교 수의 추이(1887-1904)를 도표로 제시하면 <표1>과 같다(김기석·류방란, 1999: 86, 재인용).

<표1> 장로교 교육 통계: 1887-1904

교회 부설 초등학교			
년도	학교	년도	학교
1887	1	1897	25
1888	2	1898	19
1889	2	1899	28
1890	2	1900	48
1891	2	1901	63
1892	2	1902	75
1893	5	1903	84
1894	5	1904	115
1895	7		

자료: Quarto Centennial, The Korean Mission, Presbyterian Church, 1909.

이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장로교의 교회부설 초등학교는 188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1900년대에 접어들면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1904년에는 115개교에 이르게 된다. 1894년과 1904년의 장로교회의 부설 초등학교 수를 비교해보면 5개교에서 115개교로 십 년 만에 무려 23배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독교학교의 설립 확산은 1904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

한국의 장로교회가 1907년에 노회를 구성한 이후에는 노회의 회의록에 당시의 기독교학교 상황이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당시 노회 보고 시에는 필히 ‘학교형편’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의 기독교학교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다. 또한 1912년에 장로교 총회가 구성되는데, 이때부터는 총회 회의록에서 그 당시의 자세한 기독교학교의 상황을 알 수 있다. 장로교 제1회 회의록에는 1905년부터의 기독교학교 수 및 학생 수의 추이가 도별로 파악되어 있는데,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표2>와 같다. 1905년의 상황을 살펴보면, 교회 수는 417개, 목사 수는 46명, 그리고 교인 수는 37,407명인데 소학교수는 139개교였으며 소학교의 학생 수는 2,730명이었다(예수교 장로회 대한 노회 제1회 회록, 1907: 42). 이는 당시의 소학교의 학생 수가 평균 20명 정도의 소규모 학교였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해인 1906년에는 소학교수의 수가 238개교로 약 100개교가 증가하였고, 1907년에는 소학교의 수가 405개교로 171개교가 증가하였다. 이는 가히 폭발적인 증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07년의 지역별 소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평안남북 황해도 지역이 256개교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경상남북도로서 60개교, 전라남북도 44개교, 경기강원 충청남북도가 38개교, 함경남북도가 17개교 순으로 나타났다.

<표2> 1907년 장로교 독노회 통계 보고표

십삼도	평안남북 황 해	경기강원 충청남북	전라남북	경상남북	함경남북	도합금년	도합 1906년	도합 1905년
목사	14	10	10	9	6	49	46	46
지교회	348	123	109	145	60	785	584	417
교인도합	43,190	7,435	9,376	9,337	3,830	72,968	56,943	37,407
소학교	256	38	44	60	17	405	238	139
학생수	6,271	739	497	803	305	8,615	5,124	2,730

자료: 예수교 장로회 대한 노회 제1회 회록, 1907.

1908년도의 소학교수는 542개교였으며 소학교 학생 수는 10,191명으로 나타났다. 이때에는 중학교 수는 11개였으며 중학생 수는 683명으로 나타났다. 소학교의 학교당 학생 수는 평균 19명 정도인데, 중학교의 학교당 학생 수는 평균 62명으로 중학교가 훨씬 규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1908년도의 지역별 소학교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평안북도 148개교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평안남도로서 110개교였다. 그런데 이 때 평안북도의 경우 예배처소가 108개교인데, 소학교수는 이보다 많은 148개교인 것은 한 교회가 한 학교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한 교회가 두세 학교를 세운 사례가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전라북도, 전라남도, 그리고 함경도 지역이 상대적으로 소학교 수가 적게 나타나고 있다.

〈표3〉 1908년 장로교 독노회 통계 보고표

	경기	평남	평북	황해	전남	전북	경상	함경	도합
목사	9	11	5	5	6	8	10	6	60
교인 도합	7,320	22,298	20,086	12,893	6,400	9,112	13,560	3,312	94,981
대학교	1	1	0	0	0	0	0	0	2
중학교남(여)	1(2)	2(1)	1(1)	0(0)	1(0)	2(1)	1(1)	3(0)	11(6)
소학교남(여)	39	110	148	83	27	30	85	20	542
대학교도	14	15	0	0	0	1	0	0	30
중학교도남 (여)	126 (65)	295 (100)	0 (0)	0 (0)	84 (0)	62 (39)	68 (7)	48 (0)	683 (202)
소학교도남 (여)	647 (265)	3,021 (790)	3,100 (624)	1,700 (328)	366 (52)	400 (35)	1,010 (468)	237 (147)	10,191 (2,644)
예배 처소	171	201	108	140	84	123	239	53	1,119

자료: 예수교 장로회 대한 노회 제2회 회록, 1908.

1909년도의 소학교수는 694개교로서 장로교의 소학교 수가 최고조에 이르게 되었다. 이 가운데 여학교도 84개나 되는데, 이는 여아들에 대한 교육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당시 소학교의 학생 수도 전체가 15,673명으로 어느 다른 해보다도 많은 학생 수를 기록하고 있다. 지역별 소학교 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1908년과는 달리 평안남도가 146개교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평안북도는 128개교로 나타났다. 경상도의 소학교수는 120개교로서 1908년에 비해 35개교가 증가하였는데,

학생수가 1,420명으로서 한 학교당 평균 11명 정도의 소규모 학교들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4〉 1909년 장로교 독노회 통계 보고표

	경기	평안남	평안북	황해	전라남	전라북	경상	함경	도합
목사	11	11	6	6	7	5	11	6	63
교인도합	7,782	30,128	25,910	13,108	7,500	7,409	21,842	5,594	119,273
대학교	0	1	0	0	0	0	0	0	1
중학교(여)	2(2)	3(2)	5(2)	1	1	2	2	3	19(6)
소학교(여)	31	146(37)	128(32)	101	26(2)	36(2)	120	22(11)	694(84)
대학생	0	17	4	0	0	0	0	0	21
중학도 (여)	230(93)	321 (107)	203(43)	63	20	64	78	110	1,332
소학도 (여)	669(93)	3,534 (809)	3,355 (704)	2705	737(95)	867 (120)	1,420 (352)	495 (230)	15,673
예배 처소	189	241	282	137	110	142	337	134	1,580

자료: 예수교 장로회 대한 노회 제3회 회록, 1909.

1910년 통계를 살펴보면 소학교수가 684개교로서 전년보다 10개교가 감소하였는데, 이때로부터 한국교회가 설립한 소학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평안남도가 183개교로 가장 많았고 황해도는 64개교로서 그 전년도보다 무려 37개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학교수는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도 중학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1908년에 11개교에서, 1909년에는 19개교로, 그리고 1910년에는 22개교로 증가하였다.

〈표5〉 1910년 장로교 독노회 통계 보고표

	경기	남평안	북평안	황해	남전라	북전라	경상	함경	도합
목사	9	12	10	6	7	8	15	8	75
교인 도합	8,189	33,144	26,968	13,892	11,837	9,152	37,399	9,889	140,470
대학교	0	1	0	0	0	0	0	0	1
중학교(여)	2	2(1)	4(2)	2	1	2(2)	1	3	22

	경기	남평안	북평안	황해	남전라	북전라	경상	함경	도합
소학교(여)	37	183	115(36)	64(16)	22(3)	38(2)	112	57	684
대학도	0	30	0	6	0	0	0	1	37
중학도	110	597	246(53)	71	15	82(30)	40(12)	186	1,442
소학도	762	4,055	2,910 (625)	1,330 (395)	485 (130)	1,036 (89)	1,462 (502)	1,075	14,863
예배 처소	170	240	147	272	26	175	315	285	1,632

자료: 예수교 장로회 대한 노회 제4회 회록, 1910.

1911년도의 소학교수는 631개교로서 전년도보다 53개교가 감소하였으며, 소학생수도 13,608명으로서 전년도보다 1000명 이상이 줄어들었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평안남도가 148개교로서 가장 많았는데, 전년도보다는 35개교가 감소한 수치이며, 평안북도가 111개교로 나타나고 있다. 이 해에는 경상도가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로 나뉘어 보고가 되었는데, 경상북도가 74개교로서 22개교인 경상남도보다 많은 소학교수를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있다. 1912년도에는 소학교수가 539개교로 감소하게 되어서 전년도보다 거의 100개교가 줄어들게 되는데 격감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6〉 1911년 장로교 독노회 통계 보고표

	경기	평안남	평안북	황해	전라남	전라북	경상남	경상북	함경	도합
목사	11	14	16	7	9	8	10	8	12	95
교인 도합	9,647	33,720	31,636	12,676	6,062	8,140	14,146	16,396	11,842	144,265
대학교	0	1	0	0	0	0	0	0	0	1
중학교	1(1)	1(1)	5(2)	1(0)	2	2(2)	0	1(1)	3(0)	23
소학교	31	148(38)	111(28)	54(16)	25	25(4)	22	74(5)	36(14)	631
대학생	0	49	0	0	0	0	0	0	0	49
중학생	267	316(140)	382	33(5)	35	114(56)	0	53(4)	155(14)	1,474
소학생	776	2,950 (815)	3,080 (759)	472 (313)	642 (145)	519 (97)	353 (322)	939 (164)	929 (333)	13,608
예배 처소	47	159	200	232	101	212	250	174	310	1,685

자료: 예수교 장로회 대한 노회 제5회 회록, 1911.

〈표7〉 1912년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 통계 보고표

	경기·충청	평안남	평안북	황해	전라남	경상	함경	도합
목사	12	28	26	10	20	18	14	128
교인도합	10,075	30,000	26,948	11,439	15,439	23,985	9,342	127,228
대학교	1	1	0	0	0	0	0	2
중학교 남(여)	2	2	2(4)	0	6(5)	1(1)	2	25
소학교 남(여)	2(6)	156	102(22)	35(18)	39(1)	96(5)	20(10)	539
대학생	8	54	18	1	0	2	0	83
중학도 남(여)	165	480	296(36)	12(6)	286(228)	132(13)	121(3)	1,778
소학도 남(여)	713	3,765	2,529(547)	762(300)	821(84)	1,572(404)	1,160(286)	12,943
예배처소	182	232	469	171	388	457	155	2,0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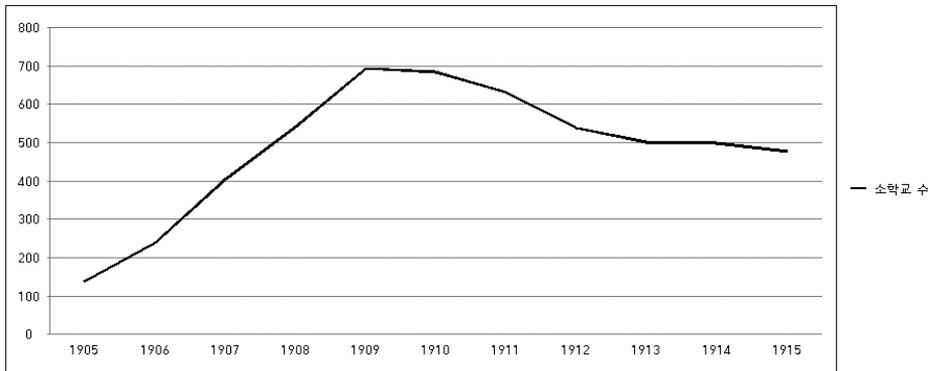
자료: 예수교 장로회 조선 총회 제1회 회록, 1912.

1905년부터 1912년까지의 한국 장로교회 설립 학교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표8>과 같은데, 1905년 139개교에서 점점 증가하다가 1909년에 최고조에 이르게 되는데 694개 교에 달하였다. 당시의 교회당이 1580개 처소인 것을 생각하면 약 두 교회 중 한 교회는 학교를 설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목사의 수는 46명에서 63명으로 증가한 정도인 것에 비교한다면 소학교 수의 증가는 폭발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10년 이후부터는 학교 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1912년에는 539명으로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중학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1908년에 11개교이던 것이 1912년에는 25개교로 늘어나게 된다.

〈표8〉 1905-1912년 장로교 종합 교육 통계

	1905	1906	1907	1908	1909	1910	1911	1912
목사	46	46	49	60	63	75	95	128
교인도합	37,407	56,943	72,968	94,981	119,273	140,470	144,265	127,228
대학교	0	0	0	2	1	1	1	2
중학교 남(여)	0	0	0	11(6)	19(6)	22	23	25
소학교 남(여)	139	238	405	542	694(84)	684	631	539
대학생	0	0	0	30	21	37	49	83
중학도 남(여)	0	0	0	683(202)	1,332	1,442	1,474	1,778
소학도 남(여)	2,730	5,124	8,615	10,191 (2,644)	15,673	14,863	13,608	12,943
예배처소	417	584	785	1,119	1,580	1,632	1,685	2,054

1912년 이후에도 소학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는데, 1913년에는 소학교 수가 501개교로 감소하고, 1914년에는 499개교로, 그리고 1915년에는 477개교로 줄어들게 된다(예수교 장로회 조선 총회 제5회 회록, 1916: 96). 1905년부터 1915년 사이의 장로교단 소속의 교회설립 소학교 수의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1]과 같은데, 1909년까지는 가파르게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1910년부터 서서히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림1] 1905-1915년 장로교 소학교수 추이

III. 한국 초기 기독교학교의 쇠퇴 원인과 한국교회의 노력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909년을 정점으로 교회가 설립한 소학교가 쇠퇴하기 시작한다. 당시 교회가 설립한 학교들이 폐교하거나 병합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주된 이유는 재정적인 어려움과 일제 통감부의 지나친 통제 및 관립학교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1910년 이후의 독노회 회의록이나 총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교회 설립 기독교학교들이 전국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1. 재정적인 어려움과 교회의 역할

당시 교회 설립 학교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각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대리회의 보고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 1911년 독노회의 평안북도 대리회

의 보고(예수교 장로회 대한 노회 제5회 회록, 1911: 49)는 “학교형편은 힘이 전보다 적은 곳이 많사오나 잘되는 곳도 있사오며”로 되어 있고, 평안남도 대리회의 보고(노회 제5회 회록, 1911: 51)는 “학교형편은 몇 학교가 합하기도 하며 폐지도 하였고로 학생 수는 줄었으나 처소는 전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각 학교에 재정이 궁색하고 과목 중 교과서 책이 부족하오니 심히 민망하오며 남녀 대중(공학)학교는 전보다 더욱 잘 되어가웁니다.”로 되어 있다. 즉, 모든 학교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학교들이 재정적인 이유로 폐지되거나 합병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학교 재정의 어려움으로 교과서 책마저 공급할 수 없는 형편임을 알 수 있다. 황해도 대리회도 “학교형편은 연약하여 좀 줄었사오며”라고 보고하고 있으며, 경기도 대리회도 “학교형편은 재정이 곤란하오며”라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경상남도 대리회(노회 제5회 회록, 1911: 62)는 “학교형편은 전진하는 학교도 있고 인가 받은 학교 중에 혹 폐지된 것도 있고 지금 남아있는 학교 중에도 재정 곤란으로 인하여 폐지 지경에 이른 것도 있사오며”라고 보고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학생수도 줄어들면서 재정적인 압박으로 인해 폐지되는 안타까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12년에 이르게 되면 교회 설립 학교들이 보다 심각한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데, 총회회의록의 각 노회별 보고를 보면 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먼저 경기충청노회 보고서(예수교 장로회 조선 총회 제1회 회록, 1912: 43)는 “학교형편은 잘 되어가는 곳도 있으나 재정이 어려운 곳이 많음”이라고 적고 있으며, 황해도노회 보고서(총회 제1회 회록, 1912: 46)는 “학교형편은 좀 섭섭한 것이 각처 소학교도 줄어지고 또 중학교는 폐지가 됩지요”라고 쓰고 있다. 급속도로 확산되던 한국교회의 소학교 설립운동이 이제 하향곡선을 그리면서 폐교되는 학교들이 속속 출현함을 섭섭한 마음으로 보고하고 있는 것이다. 남평안 노회 보고(총회 제1회 회록, 1912: 48)는 소학교는 병합과 폐지 사례가 많지만 중학교는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학교형편은 소학교는 혹 합한 곳과 폐한 곳이 있사오나 대중학교는 여전히 진보하오며”라고 기록하고 있다. 북평안도 노회 보고서(총회 제1회 회록, 1912: 50)도 “학교형편은 힘이 전만 못 하오며 폐지된 학교도 있사오며 혹 잘되는 곳도 있사오며”라고 적고 있는데, 한해가 다르게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폐교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1913년에도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은 계속되는데, 총회회의록에 보면 폐교되거나 합병되는 학교의 상황이 노회별로 보고됨을 알 수 있다. 남평안노회보고서(예수교 장로

회 조선 총회 제2회 회록, 1913: 45)에는 학교형편에 대해서 “여전히 유지하는 곳도 많사오며 혹 폐하고 합하는 곳도 있사오며”라고 쓰고 있고, 경기총청노회보고서(총회 제2회 회록, 1913: 47)에도 “이왕과 일반이오며 교육상황은 흉왕한 곳도 있사오며 재정이 균졸한 곳이 많음”으로 적고 있다. 황해도노회보고서(총회 제2회 회록, 1913: 50)는 더 심각하게 학교형편을 보고하고 있는데 “중학교는 없사오며 남아있는 소학교는 겨우 부지하여 가오며”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서 매우 심각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전라노회보고서에서는 이러한 형편을 개선할 가능성이 없다는 절망적인 보고를 담고 있다. “각 교회에 있는 소학교 형편에 대하여서는 다 말할 수 없사오나 현금경비 곤란 중에 근근히 부지하는 모양이로되 장래에 확장할 희망의 방침이 없습니다”(총회 제2회 회록, 1913: 55). 즉, 학교가 그 명맥을 이어간다 할찌라도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상황이 호전될 수 있는 여지도 없음을 말하고 있다.

1915년에 이르면 교회가 설립한 학교들의 재정적인 어려움은 더욱 극심하게 된다. 총회 시에 학무위원의 보고(예수교 장로회 조선 총회 제4회 회록, 1915: 40)에 의하면 “현금 학교 정황은 각 노회가 이미 보고하였사오니 상지하였으려니와 특별한 정황은 재정 곤란으로 유지하기 극난이오며”라고 적고 있다. 그래서 학무위원이 제안한 안은 각 노회 지경 안에 있는 학교들끼리 병합하거나 사숙과 합병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각 노회 지경 내에서 각기 중앙 위치에 있는 학교 부근의 학교와 사숙을 합병하여 유지하도록 하시기를 바라오며.” 각 노회별 보고를 통해서 전국적인 상황을 파악해 보면 경기총청노회의 경우(총회 제4회 회록, 1915: 44) 교육정황과 학생 수효는 증가되었으나 재정이 어려워 “소학교를 감리회와 연합하여 교육하는 곳”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타교단의 학교와 연합할 정도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평북노회(총회 제4회 회록, 1915: 46)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여러 곳에서 기본을 모집하여 잘하는 학교도 많사오나 재정이 곤란하여 혹 폐교하는 곳도 있사오며 혹 학교는 폐하고 서당을 설립하는 곳도 있사오며 여자교육은 남자교육보다 많이 떨어지오며 남녀중학은 여전히 잘하오며.” 이 보고에 따르면 재정이 어려워 학교는 폐교하고 대신 서당을 설립하는 곳도 있다는 것이다. 경상노회(총회 제4회 회록, 1915: 49)도 학교형편에 대해서 “잘 진보하는 곳도 있으나 보통으로 말하면 약한 모양이오며”라고 보고하고 있고, 평남노회보고서(총회 제4회 회록, 1915: 52)에는 “여전히 유지하여

진보하는 곳도 있사오며 재정 곤란으로 어렵게 지내는 곳이 많사오며”라고 기록하고 있다. 전라노회(총회 제4회 회록, 1915: 55)는 “재정은 부족하나 교육열정으로 전진하는 중 실업에 주의하여 확장하여 가나이다”라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교육열성을 통해 극복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기독교학교의 재정적인 어려움은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1916년 총회에서는 학무위원 보고를 통해 그 재정적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학무위원 의 첫 번째 보고 사항이 “인가받은 각 학교를 무슨 방칙으로든지 폐지하지 않게 하되 특별히 적립금을 교회 안에 두고 학교용비를 보조케 할 것”(예수교 장로회 조선 총회 제5회 회록, 1916: 19)이었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폐지되는 학교를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그리고 교회가 적립금을 마련하여 학교 재정을 보조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1916년 총회에서도 노회별로 학교들의 형편이 보고되어졌는데 대부분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함경노회보고서(총회 제5회 회록, 1916: 73)에 “미션회에서 도와주는 학교들은 여전히 되어가오며 우리들이 힘쓰는 학교는 재정이 곤란하여 유지하기 어려운 형편 많사오며”라는 기록이 있다. 즉, 선교회에 속해 있는 학교들은 재정에 큰 어려움이 없는데 한국교회들이 설립한 학교들은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북노회(총회 제5회 회록, 1916: 59)의 경우는 “학교권유사를 세워 평북 각 학교와 교회로 순행하며 권장하였는데 학교마다 20-30원 내지 천여원까지 기본금을 다수히 모집하여 유지하게 하온 중 불완전한 학교가 폐지된 것이 혹 있사오나”라고 보고하고 있다. 학교권유사로 하여금 학교와 교회를 방문해서 기본금을 모아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한 것이다.

1917년에도 많은 학교들이 폐지되는 아픔을 겪었다.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전라노회(예수교 장로회 조선 총회 제6회 회록, 1917: 43)의 경우 “경비의 곤졸로 인하여 혹 폐지된 곳도 있사오며 현금 유지하는 것도 전진할 방침이 막연하나 미션회 설립학교는 여전히 하오며”라고 보고하고 있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폐지하는 추세이고 현상 유지하기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그런 가운데서도 선교회가 설립한 학교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북노회의 보고(총회 제6회 회록, 1917: 46)에 의하면 “소학교는 보통 다 연약하오며 남녀중학교는 여전히 하오며”라고 적고 있는데, 소학교는 거의 모든 학교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에 반해서 남녀중학교는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함경노회에서는 1916년의 보고처럼 선교

회 설립학교와 조선교회 설립 학교를 비교하여 재정이 어려움에 차이가 있음을 토로하고 있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미션회에서 경한 고등정도와 중학정도학교는 여전히 잘 되오며, 2. 조선교회에서 경영하는 학교는 재정이 곤란함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각 시찰 지경에서 학무위원 2인씩 택하여 학교를 시찰 확장케 하였사오며”(총회 제6회 회록, 1917: 50). 당시 한국교회가 이러한 학교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각 시찰별로 학무위원 2명을 파견하여 학교를 지원하는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당시 기독교학교들이 겪는 재정적인 어려움은 몇 개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었으며 해가 갈수록 심화되어갔기 때문에 개 교회는 물론 노회 또는 총회가 지원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었고, 결국 병합하거나 폐교하는 학교가 속출하여 교회설립 기독교학교의 수는 1910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2. 일제의 기독교학교 탄압과 교회의 역할

1890년대부터 1909년까지 교회 설립 기독교학교가 지속적으로 증가, 확산되다가 1910년부터 폐교하는 학교가 오히려 늘어가고 그 수가 감소세로 돌아서게 되는 데에는 재정적인 어려움만이 아니라 일제가 여러 가지 법령을 공포하며 의도적으로 사립 학교, 특히 기독교 사립학교에 대한 억압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일본은 1904년 러일 전쟁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제국주의적 침략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했는데, 이 해에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였고, 드디어 1905년 11월에 을사조약을 강압적으로 맺음으로 한국을 그들의 보호국으로 만들고 이때부터 의도적인 식민화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것은 교육 분야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학부에 일본인 고문으로 시데하라가 학정참여관으로 부임하였으며, 손인수(1998: 250)에 의하면 시데하라는 “한국인 청소년들이 사용할 교과서를 편찬하고, 일본인 교사를 채용토록 했으며, 각급학교의 교명을 변경토록 하는 등 한국교육의 실체에 깊이 관여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06년에 통감부 서기관인 다와라를 학부의 촉탁으로 파견하여 시데하라의 후임으로 학정참여관이 된 미쓰지와 함께 한국의 교육을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공포된 수많은 교육관련 법령들이 이 땅의 기독교학교들을 폐교하게 만드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통감부 소위 식민지교육을 펼치기

위해 1906년 이후에 공포한 교육법령을 연대순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손인수, 1998: 250).

〈표9〉 일제의 공포 교육법령(1906-1909)

법령	공포년	법령구분
사범학교령	1906	칙령41호
고등학교령	1906	칙령42호
외국어학교령	1906	칙령43호
보통학교령	1906	칙령44호
고등여학교령	1908	칙령22호
사립학교령	1908	칙령62호
사립학교보조규정	1908	학부령147호
공립사립학교인정규정	1908	학부령15호
교과용도서검정규정	1908	학부령16호
실업학교령	1909	칙령56호
실업학교령시행규칙	1909	학부령1호
고등여학교령시행규칙	1909	학부령2호
사범학교령시행규칙	1909	학부령3호
고등학교령시행규칙	1909	학부령4호
외국어학교령시행규칙	1909	학부령5호
보통학교령시행규칙	1909	학부령6호

이 가운데 특별히 1908년 8월 26일자로 공포된 사립학교령은 그동안 민족의식과 항일의식을 고취해 온 사립학교, 특히 종교계 사립학교를 억압하려는 의도에서 발표된 것으로 신설 사립학교는 물론 기존의 모든 사립학교들도 다시 인가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들을 점차적으로 폐교시키려는 음모를 드러낸 것이다. 즉, 겉으로는 사립학교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내세워 설립 요건을 까다롭게 함으로써 실제적으로는 시설이나 교육조건이 열악한 사립학교들을 폐교시키기 위한 의도를 지닌 것이다. 사립학교령 제2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한규원, 2003: 168).

제2조 사립학교를 설립코저 하는 자는 아래 사항을 구(具)하여 학부대신(學部大臣)의 인가를 수(受)함이 가(可)함.

1. 학교의 목적, 명칭 및 위치

2. 학칙

3. 교지 교사의 평면도

4. 일개년 수지예산

5. 유지방법

단 기부금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첨부함이 가(可)함

6. 설립자, 학교장 및 교원의 이력서

7. 교과용도서명

전항 제4호를 제한 외 각호의 사항에 이동을 생(生)한 시(時)는 학부대신(學部大臣)에게 보고함이 가(可)함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학부대신이 사립학교 설립을 관장하되 그 설립 요건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물론 기부금에 대한 증빙서류까지 첨부케 하고, 이를 학부대신이 판단하여 인가를 내주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사립학교 설립 및 인가를 통제하려고 하였다. 일제는 사립학교령을 제정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1911년 사립학교규칙을 제정·공포하였는데, 이는 1908년의 사립학교령을 대폭 개정한 것으로 “사립학교 설립인가 사항을 강화시키고 교과용도서는 총독부 편찬 혹은 검인정 교과서로 한정하였으며, 교원의 자격기준을 일본어에 통달한 자로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문형만, 1982: 152) 당시 총독부는 이러한 사립학교규칙에 의거하여 통치 이전에 출판된 한국의 역사와 지리, 그리고 민족정신을 조장할만한 책들을 모두 불살라버리거나 판금 조치를 취하였다. 이렇게 해서 금지된 책 종류가 50가지가 넘었다(손인수, 1991: 109). 특히 기독교학교에서 민족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당시 기독교학교에서는 ‘십자가 군병들아’와 같은 찬송가를 부름으로 항일정신을 고양시켰는데 총독부는 학교에서 찬송가 부르는 것을 금지시키기도 하였다. 그리고 교원의 자격기준에 따라 일본인 교원이 사립학교에 배치되어 일본어 보급을 시도하였고, 결국 사립학교를 관·공립학교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였다. 이로 인해 1910년 사립학교 수가 1,973개교이던 것이 1912년에는 1,317개교, 1914년에는 1,240개교, 그리고 1919년에는 690개교로 줄어들어 10년 사이에 3분의 1로 감소하게 된다. 종교계 사립학교도 1910년 746개교에서 1914년에는 473개교로 감소하게 된다(이만규, 1949: 199).

일본제국에 의해서 이루어진 기독교학교 억압 조치는 1915년 3월에 공포된 개정 사

립학교 규칙에 의해서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 개정 사립학교규칙의 주요 골자는 정부가 정한 교과과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인데, 성경, 지리, 한국사 등의 과목을 가르쳐서는 안되며 그 대신 그들의 국민의례와 신도사상을 가르치라는 것이다. 특히 기독교학교에 대해서 성경과 종교의식 대신에 수신과목을 가르치도록 한 것은 기독교의 저항의식을 배제하고 일제에 동화시키려는 종교교육에 대한 탄압이라고 볼 수 있다(손인수, 1998: 352). 이런 점에서 개정 사립학교규칙은 종교교육을 원천적으로 금하는 것이요 기독교학교에서의 기독교교육을 금지하는 법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당시 총독부의 외사국장은 “6년 내지 7년 사이에 한국에는 기독교학교가 하나도 남아있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장담하기도 하였다(오인탁, 1982: 238). 그는 경성일보에 게재한 글에서 선교사들은 “지금까지 교육에 써 온 돈과 노력을 포교라는 분야로 돌리고, 교육에 관한 모든 일은 정부 손에 전적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오인탁, 1982: 239). 개정 사립학교규칙은 기독교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경시간과 종교의식을 금지시킨 조치일 뿐만 아니라, 근원적으로 종교와 교육을 분리시키는 조치를 의미하였다. 일제는 이미 1907년의 대부흥회를 정점으로 적어도 선교사의 선에서는 종교와 정치 분리를 원칙으로 한 선교 정책에는 성공하였는데, 이를 종교와 교육의 분리로 확대함으로써 학교교육에서 기독교교육이나 민족교육을 배제시키려고 한 것이다. 이것은 기독교학교들로 하여금 정체성의 위기로 받아들여졌는데, 학교를 설립한 목적이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적인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러한 건학이념이 구현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결국 감리교단의 학교까지 포함하면 일 천 여 개교까지 확장되었던 교회설립 기독교학교들은 사립학교령과 사립학교규칙, 그리고 개정사립학교규칙에 의하여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실제적으로 일제의 사립학교 탄압으로 인해 많은 기독교학교들이 폐교하게 되었다. 1916년 장로교 총회의 평북노회보고서(총회 제5회 회록, 1916)에 의하면 “평북에 중심점 되는 선천고를 신성 남녀소학교와 보신여중학교는 인허를 얻지 못하여 폐지되었사오니 매우 섭섭하오며”라고 보고하고 있는데 당국의 인가를 얻지 못해 폐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일부 학교들은 사립학교령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병합 또는 폐합하기도 하였다. 1917년 장로교 총회 평북노회의 학교형편 보고(총회 제6회 회록, 1917)에 의하면 “사립학교령에 의하여 폐합한 학교와 기본금을 삼천원 내지 오륙천원까지 모집한 학교가 여러됨으로 기본금 합금이 일만팔천여원되오며” 라고 되어 있는

데, 이는 당시 사립학교령에 의하여 교회 설립 학교들이 생존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같은 해 총회 시에 평남노회가 보고한 학교형편에 의하면 “소학교가 1백 십일처요 남녀소학도가 사천6백43명이요 교육형편은 재미가 많사오나 재정이 곤란하여 기초가 공고치 못함으로 당국에서 병합 혹 폐지하라는 명령을 받아 병합하기로 진행하오며 기본금 모집하기를 힘쓰오며”이라고 되어 있는데, 폐지를 피하기 위해 병합을 추진하며 재정을 모으는 안타까운 현실을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일체의 기독교 사립학교 탄압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교섭의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 이러한 교섭은 물론 개별 학교가 담당하였지만 이를 지원하고 교단 차원에서 업무를 담당한 주무부서는 각 교단의 학무국이었고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의 경우는 선교연합회가 감독과 지원을 담당하였다. 그 당시 가장 많은 교회 설립 학교를 갖고 있었던 장로교단(조선 예수교 장로회)의 경우 독노회 산하의 학무국에서 이 일을 관장하였다. 1911년 독노회 회의록은 다음과 같은 학무국의 보고를 담고 있다. “각 처소 중학교에서 형편과 관할의 곤란으로 관부와 몇 달 동안 교섭하여 각각 전과 같이 유지하게 된 것도 있고 전보다 일층 더 확장된 것도 있습니다”(노회 제5회 회록, 1911: 18). 또 이 회의록에 독노회의 학무국이 일제 총독부의 학무국과 교섭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거간에 본회 학무국 위원들이 총독부와 총독부 내무부 학무국으로 더불어 여러 번 교섭함으로 교회 중학교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선호한 결과가 두어가지 있었사오니.”³⁾

3) 그 보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총독각하와 학무국 관리들이 조선예수교회내에 모든 학교들에 대하여 그 조직과 행정과 방침과 주의를 대단히 칭찬하고 교회에서 이같이 전국에 대하여 일반인민에게 유익한 사업함을 극히 좋은 줄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든지 도와주기로 하겠다 하였으며, (2)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간에 아무 다름이 없고 다만 공립학교는 정부로서 그 경비를 지불할 따름이요 그 대우와 학교에 대한 감정과 희망은 일반이라 전언하였으며, (3) 교회와 학교간의 관계는 좌우간에 충돌됨이 없고 또한 법령에 대하여는 아무 위반됨이 없는 줄로 인정하며 아무 예수교학교든지 그 교회의 목적과 저촉됨이 없을 줄 확실히 아노라 하더라, 4) 각 학교에서 제일 지킬 일에 대하여 아무쪼록 일반 관계자들이 오해함이 없게 하기 위하여 아래에서 기재한 공문으로 각 교회 학교 관리자들에게 보내었더라.”(노회 제5회 회록, 1911: 18-20) 위의 내용은 상당부분 총독부 학무국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총독각하’라는 표현과 총독부 학무국 관리들이 교회 학교들에 대해 지지하는 세력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또한 총독부의 주장대로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간의 차이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총독부의 요구대로 교회와 학교의 관계도 문제가 없는 듯한 기술을 하고 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독노회 또는 총회의 학무국의 역할은 때로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들의 입장을 총독부에 전달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가 하면 때로는 총독부

또한 일제가 1915년 3월에 개정사립학교규칙을 공포하여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을 위협하였는데, 그해 총회회의록에 보면 학무국이 총회 차원에서 항거하기를 요청하는 내용이 있다. 즉, “학교에서 예배식과 성경교수하는 일은 십년 후부터는 폐지하라 신학교령에 대하여는 총회가 총독에게 상서하여 예배식과 성경교수는 불폐하기를 허락하여 달라고 간청하시기를 바라오며”(총회 제4회 회록, 1915)라는 학무위원의 보고가 기록되어 있다. 또한 예배식에 대해서는 위원 3인을 택하여 “총독부에 교섭한 후에 여하히 되는 일을 각 처 교회에 통지”해 달라는 보고도 수록되어 있다. 즉, 당시 한국교회의 독노회나 총회의 학무국을 중심으로 일제 총독부의 학무국과 교섭하면서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노력이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일제 총독부의 사립학교를 탄압하는 제 규칙에 대해서 독노회나 총회의 학무국이 중심이 되어 교단적인 뜻을 모아 항의를 하기도 하여 결의를 통해 통일된 행동 지침을 내리기도 하였다. 또한 선교연합회도 1915년 ‘개정교육령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일제 총독부의 개정사립학교규칙에 대해 항거하였는데 그 결의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15년 조선총독부령 제 24호로서 공포한 개정사립학교규칙에서 총독부가 여러 가지 변경사항을 지시하는 가운데서, 한국 안의 기독교회와 선교회가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수백의 학교를 포함한 모든 사립학교로부터 종교교육과 종교의식을 제거할 것을 지시하고 있음에 대하여, 신교과 선교연합회는, 본국의 후원자의 이해관계와 선교회 교역자가 이 나라에 머물고 있는 유일한 목적과, 또한 이들 학교의 유지를 위하여 자금이 모집되고 있는 목적에 감(鑑)하여, 지시된 제조건이 우리가 경영하고 있는 학교로 하여금 전적으로 폐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적어도 그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판단을 확인하는 바이다. 그리고 우리는, 공포된 규칙은 기독교 계통 학교에서 성경교수의 자유에 대하여 정부가 일찍 우리에게 확약한 바에 위배되며, 일본내의 국가교육제도가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당국의 주의를 환기코저 하는 바이다. 이러한 이유에 의거하여, 우리는 기존 학교에 허용된 10년의 유예기간에 우리의 학교를 계속하면서 이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어떠한 수정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 바이며, 이 규칙이 즉시로 적용되는 신설학교에 관하여는, 적어도 일본자재 안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과 같은 조건 밑에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오인탁, 1982: 239-240).

이 결의문을 보면 당시 한국교회와 선교회가 일제 총독부에 당당히 맞서서 한국의 사립학교, 특히 기독교학교의 탄압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하고 저항하였음을 알 수 있

의 입장을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그리고 당시 상황 속에서 깊은 연구와 토의 끝에 매우 합리적이며 논리적인 문건을 작성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기독교학교의 정체성과 건학이념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총독부의 교육령이 지니는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그 개선을 요구하는 이러한 결의를 통해 일제시대 속에서도 기독교학교가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선교회 안에서도 일치된 행동을 보이지 못한 면이 있었는데, 감리교는 성경교육과 종교의식을 과외활동으로 해도 좋다는 총독부의 양해 아래서, 총독부 방침에 순응하여 학교를 세웠으며, 기존의 배재, 이화, 광성, 호수돈, 정의, 배화 등의 교명을 바꾸어 고등보통학교로 전신하여 인가를 받았다. 반면 장로교의 경우는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 구현을 가로막는 성경교육 및 예배의식 금지 자체를 문제제시하고 강력하게 저항하였다. 여러 학교들이 보통학교의 인가를 거부하고 잡종학교로서 명맥을 유지하면서 심한 탄압을 받았다. 결국 순천의 성은(聖恩), 선천의 보성(保聖) 등 많은 장로교계 기독교학교가 스스로 폐교의 길을 택하였다(오인탁, 1982: 240).

3. 관·공립학교 설립 확장

한국교회가 설립한 학교들이 점차적으로 폐쇄하게 되는 데에는 일제의 관립학교 설립 확장이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05년 일제는 을사조약을 체결한 후 1906년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교육법을 개정해 칙령 제44호에 소학교를 보통학교로 개칭하도록 했다. 동시에 서울 교동보통학교를 비롯해 전국 22개교 관·공립 보통학교를 설립하고 수업료는 물론 교과서를 비롯한 학용품까지 무료로 지급하였다. 일제 통감부는 점진적인 동화정책의 방법으로 관·공립보통학교를 점차 확장하였다. 관·공립 보통학교의 연도별 상황은 아래와 같다(손인수, 1998: 251).

〈표10〉 관·공립보통학교 상황(1906-1910)

연도	관립보통학교		공립보통학교		보조지정사립학교		계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1906	9	1,062	13	862			22	1,924
1907	9	1,681	41	3,166			50	4,847
1908	9	1,781	50	5,962			59	7,743
1909	9	2,256	51	8,658	31	2,332	91	13,246
1910	1	263	59	12,469	41	4,214	101	16,946

이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1906년도에는 공립보통학교가 13개교였는데, 1910년에는 59개교로 늘어나게 되었고, 학생수도 1906년에는 862명이었는데 1910년에는 12,469명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관립보통학교, 공립보통학교, 그리고 보조지정사립학교를 합한 학교수는 5년 사이에 5배로 증가하여 1906년의 22개교에서 101개교로 증가하게 되었으며, 학생수도 1,924명에서 16,946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1905년 이후에 설립된 이러한 관·공립학교의 설립이념은 일제 통감부의 ‘제도적 동화정책’에 의하여 세워졌다. 여기서 한국민족의 동화란 일본 민족의 언어·풍습·습관 등을 채용케 하고, 다시 나아가서 일본 민족의 특징인 충의심(忠義心)을 체득시키는데 있는 것이다(손인수, 1998: 253). 그리하여 통감부시대 일제가 세운 관·공립학교는 일본어를 해득하며, 비한국적이며 실용적인 인간을 길러 그들의 식민지 교육의 기초 공사를 다지는 데 있었다. 그러기에 이 당시의 우리 국민은 정부를 불신하고, 관·공립학교는 일제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보고 사립학교를 선택하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당시의 교회 설립 학교들은 소학교의 이름을 유지하며 교육을 계속하였는데, 많은 가정의 부모들이 이를 신뢰하고 재정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관, 공립학교에 자녀들을 보내지 아니하고 교회 설립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었다. 『연동교회100년사』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아동들을 동화정책의 희생물로 넘겨주지 않으려는 교회 지도자들은 솔선 출자해 이름을 그대로 00 소학교, 그렇지 않으면 아예 00학교로 고수하고 취학아동을 흡수했는데, 연동교회를 위시해 양평군의 용진교회 외 전국 25개 교회가 그러했다. 이 때 중류 이상의 가정에서는 관립학교를 불신하고 그들의 자녀를 시설이 불비하고 수업료를 징수해도 교회학교로 보냈다.(연동교회, 1995: 168)

그러나 점차적으로 관·공립학교가 확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정을 투자하여 시설을 개선하고 교육환경을 향상시킴으로 사립학교 학생들의 불만이 증가하게 되었고, 관·공립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교회 설립 기독교학교들은 급속하게 팽창되던 것이 위축되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폐교하는 학교들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IV. 오늘날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에 주는 교훈

초기 한국교회가 기독교학교를 설립하여 기독교교육을 실천하고 기독교학교의 부흥을 이룬 역사, 그리고 일제의 사립학교령에 의한 기독교학교 탄압과 관·공립학교의 설립을 통한 기독교학교 억제 정책에 맞서서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한국 교회의 노력, 그러나 지속적인 탄압과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상당수의 기독교학교가 병합되거나 폐지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는 오늘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물론 당시 일제의 탄압 속에서 겪었던 기독교학교의 어려움과 오늘날 사회 속에서 기독교학교가 겪는 어려움의 양태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시대적 상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학교가 경험하는 갈등과 그 극복의 방식이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의미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다.

1. 건학이념의 구현과 종교와 교육의 통합

초기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는 공히 기독교적 건학이념을 유지하고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교회가 기독교학교를 설립한 것은 또 하나의 학교를 세운 것이 아니었고 분명한 목적과 건학이념, 정체성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러한 ‘기독교학교 됨’은 생명과 같아서 그 됨됨이가 위협받는 것은 존재가 위협받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1908년 사립학교령을 반포한 후 일제가 지속적으로 기독교학교를 탄압하기 위해 사용한 논리는 ‘종교와 교육의 분리’였다. 종교는 교회의 몫이고 교육은 국가의 몫이라는 개념이며, 종교는 사적인 것이고 교육은 공적인 것이라는 논리이다. 학교에서 종교의식이나 종교교육을 하지 못하게 한 것도 바로 이런 종교와 교육의 분리 논리에 근거한 것이었고, 이러한 입장에서 사립학교규칙과 개정사립학교규칙을 발표하여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과 정체성을 약화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학교들은 건학이념과 정체성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 인식하고 저항하였으며, 이로 인해 폐교까지 당한 학교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 구현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결연한 의지는 한국 기독교학교의 존재방식의 특성을 형성하였고, 이는 지속적으로 계승되어야 할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공교육과 기독교학교의 관계 속에서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과 정체성은 도

전반고 위협받고 있다. 우선 기독교학교를 포함한 사립학교를 공교육 체계 속에 편입 시킴으로써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무시되고 준공립화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그리고 공적 영역에서는 종교적 편향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논리로 기독교학교의 기독교교육을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일제 시대와 유사하게도 ‘종교와 교육의 분리’라는 논리로 접근하면서 교육은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사적인 종교교육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대안학교에 대해서도 인가의 조건으로 기독교적 편향성을 제거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사실 공교육 속에 있는 기독교학교나 인가받은 기독교대안학교는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의 교육당국은 정식 학교로 인가한 만큼 공립학교에 요구하는 기준을 그대로 기독교학교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학교는 초기 기독교학교의 역사를 거울삼아 인가가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초기 기독교학교들이 존폐를 걸고 지키려고 했던 기독교학교의 정체성과 건학이념을 인가문제 때문에 포기하거나 타협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들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진정한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과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변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재정적인 어려움의 극복

초기 한국교회의 기독교학교들이 봉착했던 최대의 위기 중의 하나가 재정적인 문제였다. 결국 이러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기독교적 건학이념을 표방했던 많은 기독교학교들이 병합되거나 폐교하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에도 일제 총독부에 의해 설립된 관립 또는 공립보통학교들은 수업료를 받지 않았고 심지어는 학용품도 무료로 나눠주기도 하면서 학생들을 모집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설립한 기독교학교들은 소정의 수업료와 열악한 교회의 재정지원을 통해서 운영되었다. 초창기에는 교사들이 무료로 봉사하는 등 헌신적인 수고를 아끼지 않았지만 재정적 지원이 없이는 기독교학교가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선교회가 세운 학교들은 상대적으로 한국교회가 설립한 학교보다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보다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독교학교들도 대부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정적인

어려움은 학교의 존립과 관련되며 교육의 질과 직결된다. 지금처럼 기독교대안학교의 경우 정부의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이러한 재정적인 어려움은 학교의 존속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마치 초기 기독교학교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폐교하는 학교들이 급증했던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대안학교들도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도적으로 부모가 낸 세금 중 일부라도 환급받아 자기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교단적으로 또는 초교파적으로 ‘기독교학교 후원회’를 구성하여 기독교학교가 겪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기독교학교의 사역은 본질상 한국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공교육 체계 속에 있는 기독교학교들도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도 재정적인 후원구조는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인가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

초기 한국교회가 설립한 학교들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정식 학교로 인가받은 학교들이고, 다른 하나는 인가받지 못한 서당, 사숙, 학당 등의 학교들이다. 그런데 초기 한국교회는 가능한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를 설립하거나, 학교와 유사한 형태로 설립한 후 인가를 취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일제는 1908년 사립학교령 이후 여러 차례의 교육관련 법령 또는 규칙의 제정으로 인가의 기준을 동화정책에 맞는 기준으로 변경, 강화함으로써 인가를 통해 기독교학교들을 통제하려고 하였다. 결국 시설기준, 교사기준, 교육과정기준, 재정기준 등을 맞추지 못해서 병합하거나 폐교하는 학교들이 속출하게 되고, 이것이 기독교학교의 쇠퇴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여러 기독교학교들이 건학이념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인가를 포기하고 자진 폐교하는 경우도 있었다.

오늘날 기독교학교, 특히 기독교대안학교의 경우는 인가문제가 가장 심각한 이슈임에 틀림없다. 대부분의 기독교대안학교들이 ‘미인가’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사실 정부가 2007년 ‘대안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공포하였고, 이를 수정하여 2009년에 개정안을 발표하였지만, 여전히 기독교대안학교들이 그 기준을 만족시키기에 과도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인가문제는 국가의 권위에 대

해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적인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국가는 교육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다. 기독교학교는 가능한 한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교육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기독교대안학교들이 인가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현재 ‘대안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의 인가 기준을 조절하는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

4. 학교 연합 및 교단 연합

초기 기독교학교들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여러 교회가 연합하여 한 교회를 설립하는 등 교육을 위한 교회 간, 교단 간 연합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경우는 교회 연합 또는 교단 연합으로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았다. 1910년 이후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 기독교학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재정적인 곤란을 겪을 때에도 교회들이 설립한 학교들 간의 병합을 통해 기독교학교를 존속시키기도 하였다. 자기 교회, 자기 교단의 한계를 넘어서 한국교회가 설립한 기독교학교에 대한 존중이 있었고 교회 간의 협력이 있었다. 장로교와 감리교가 교단이 달랐지만 기독교학교 운동에 있어서는 상호 협력하며 공동으로 지역의 중·고등학교나 대학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오늘날 기독교학교 운동에 있어서 개교회주의는 극복되어야 한다. 개 교회가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개 교회의 교회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의 다음세대를 위한 것이라면 교회 간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한 교회가 주축이 되어 학교를 설립하더라도 학생 모집에 있어서는 그 문을 개방하여야 하며 교회가 협력하여 교육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에도 여러 교회가 협력하여 학교를 설립하는 움직임도 있는데 이는 매우 고무적이다. 같은 지역 안에서는 교단이 다르더라도 기독교학교에 대한 비전을 지닌 여러 교회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모아 기독교교육의 사명을 감당하여야 한다. 학교 간 경쟁이 치열한 신자유주의적 교육 풍토 속에서 기독교학교들은 학생모집, 교육과정 운영, 교사교육, 학부모교육 등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초기 한국 교회의 기독교학교들이 보여주고 있는 연합정신이 오늘날의 기독교학교 운동에도 아

틈답게 계승되어야 한다.

VII. 나가는 말

초기 한국교회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활발한 기독교학교 설립 운동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소위 ‘1교회 1학교’ 운동을 펼치면서 교회 건물을 짓기 전에 먼저 기독교학교를 설립했던 많은 사례들이 있고, 이로 인해 장로교 계통의 소학교만 1909년에는 694개교가 될 정도로 기독교학교 운동은 확산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기독교학교의 수는 점차 감소하게 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 일제의 기독교학교 탄압, 그리고 관·공립학교의 확장을 그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회가 장로교의 경우 노회마다 학무국을 설치하여 기독교학교를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사립학교령을 비롯한 일제의 기독교학교 탄압 정책에 저항하고 항거하였지만 기독교학교의 쇠퇴를 막지는 못하였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는 이러한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최근 한국교회 안에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대안)학교 설립 운동이 지속적인 기독교교육 운동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개별 기독교학교의 노력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공동체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 초기 기독교학교의 쇠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기독교학교의 설립만이 아니라 기독교학교의 생태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구조 확립, 재정적인 지원, 한국교회의 연합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한국의 기독교학교들이 더욱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교회와 기독교학교들이 경험한 다양한 성공과 실패의 사례 속에서 살아있는 지혜를 얻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2007). 『기독교대안학교 가이드』.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김기석, 류방란 (1999). 『한국 근대교육의 태동』. 서울: 교육과학사.
- 대한예수교장로회 조선총회 (1912). 『제1회 총회회록』.
_____ (1913). 『제2회 총회회록』.
_____ (1914). 『제3회 총회회록』.
_____ (1915). 『제4회 총회회록』.
_____ (1916). 『제5회 총회회록』.
_____ (1917). 『제6회 총회회록』.
- 문형만 (1982). “일제의 식민교육과 종교교육의 갈등.”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근대 민족교육의 전개와 갈등』.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박상진 (2006). 『기독교학교교육론』.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_____ (2011). “초기 한국교회의 학교설립과 지원체제 연구.” 『장신논단』, 43, 336-359.
- 박용규 (2007). “대부흥운동이 기독교학교 설립에 끼친 영향.”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편. 『평양대부흥운동과 기독교학교』.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백낙준 (1993). 『한국개신교사(1832-1910)』. 서울: 연세대출판부.
- 손인수 (1998). 『한국교육사연구(하)』. 서울: 문음사.
_____ (1982). “한국근대 민족주의 교육운동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근대 민족교육의 전개와 갈등』.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_____ (1991). “한국 근대교육의 이념과 실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교육 제 1집: 신교육제도 도입과 교육관 변천에 관한 연구』.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숭실대학교 (1987). 『숭실대학교 90년사』. 서울: 숭실대출판부.
- 연동교회 (1995). 『연동교회 100년사』. 서울: 연동교회.
- 예수교 장로회 대한 노회 (1907). 『제1회 회록』.
_____ (1908). 『제2회 회록』.
_____ (1909). 『제3회 회록』.
_____ (1910). 『제4회 회록』.
_____ (1911). 『제5회 회록』.
- 오인택 (1982). “일제하 민족교육과 종교교육의 갈등.”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근대 민족교육의 전개와 갈등』.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이만규 (1949). 『조선교육사(하권)』. 서울: 을유문화사.
- 임희국 (2007). “한국교회 초기 기독교학교 설립.”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편. 『평양 대부흥운동과 기독교학교』.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정영희 (1999). 『개화기 종교계의 교육운동 연구』. 서울: 도서출판 해안.
- 한규원 (2003). 『한국 기독교학교의 민족교육 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ABSTRACT

A Study on the decline of the early Christian schools in Korea - Focusing on Presbyterian elementary schools -

Sang Jin Park(Presbyterian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Although the first Christian schools were established by missionaries from North America, Korean churches began to establish many Christian schools after the 1890's. In 1909, the number of Christian elementary schools established by Presbyterian churches in Korea was 694. Dr. Nak-Jun Baik has called it the “educational renaissance.”

However, the number of Christian schools began to decrease gradually from right after 190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into the phenomenon of the decrease of Christian schools, to analyze its reasons, to understand the role of Korean churches in its process, and to gain insights for today's Korean churches and Christian schools from these historical facts. For this purpose, the study analyzes all the annual reports of the Presbytery and the Assembly of Presbyterian Churches in Korea during 1907-1915, and other historical documents. According to this study, the number of Christian schools, which had been 694 as of 1909, had decreased to 477 by 1915.

The reason for this decrease can be explained as follows. First, Christian schools were closed due to financial problems. Second, the government of Japan in Korea oppressed Christian schools through various laws, including the law regarding private schools. Third, public schools rapidly increased in number during that time. Although Korean churches tried to support Christian schools by establishing Hakmukook in each presbytery and to resist the government of Japan in Korea, they could not turn the tendency of decrease of Christian schools. Korean

churches and Christian schools must gain insights from this history in order to overcome the crisis of Christian schools in the future.

Key Words: Christian school, Presbyterian elementary school, Christian day school, Decrease of Christian schools